

치과기공사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권 순 석
동우대학교 치기공과

A study of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dental technicians

Soon-Suk Kw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ong-U College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fundamental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will enhance the satisfactions of the dental technicians' daily life. To this end, we examine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s' social and emotional life satisfactions and their overall daily lives.

Methods: Out of the random selection of the registered dental offices of Dental Technicians in Seoul, Gyeonggi-do, and Gangwon-do districts. Four hundred working dental technicians were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from the 1st of June to the 25th of August, 2011. We collected the 355 sheets of the questionnaire and took frequency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Win 12.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social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turned out 3.71 on average, emotional satisfac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were shown 2.77 and 3.19 respectively. Secondly, Age(p<.05), Career(p<.001),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p<.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life satisfaction area, whereas monthly earning(p<.05),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p<.001) revealed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domain of emotional life satisfaction. Thirdly, i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daily lives, monthly earning(p<.05), career(p<.01),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p<.001)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urport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o further research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ental technicians' satisfaction of daily lives.

○ **Key words** : dental technicians, subjectiv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11년도 동우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성명	권 순 석	전화	033-639-0663	E-mail	kss37@duc.ac.kr	
	주소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208 (노학동 산244)					
접수일	2011. 11. 10		수정일	2011. 12. 1		확정일	2011. 12. 28

I. 서 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은 행복을 일상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학자들이 행복추구의 과정이나 주관적 참살이에 대한 영향 변수를 연구해 왔다. 생활만족도는 건강, 경제, 문화, 가족관계, 안전 등의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로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부심(self-esteem), 신경성(neuroticism)의 특성, 낙천성 등이 있으며, 연령, 성별, 결혼여부의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소득, 실업 등의 경제적 요소 및 고용상태와 노동현장의 스트레스, 직장 동료 등의 인간적 관계 등의 상황 요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와 개인의 정치참여 정도 등의 제도적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 Stutzer, 2000).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개인의 행복감은 결정되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느낌이 표출된 감정이지만, 현재 자신의 가정 및 직장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경험이 쌓여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형성시키는 요인들은 개인의 감정에 순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강성진, 2010).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의 합일 정도인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998년 이후 200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2004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 2005). 이처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만족도는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치기공과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치과기공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이종도와 정영해, 2009), 일반인들은 치과기공사에 대해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정효경 외, 2010), 치과기공사가 주로 취업을 하는 치과기공소(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대상에 속하지 않는(박수철 외, 2011)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김옥태와 한태영(2009)은 치

과기공사의 스트레스 증상에 직장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고, 이덕수(2010)는 치과기공소의 작업환경이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활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장현욱(2003)은 치과기공소(실)의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치과기공사의 질병예방이 필요하고, 민경진 외(2004)는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치과기공사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에 속하는 직장생활에서 각종 스트레스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개선을 통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개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신체 및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켜 안녕 정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로, 신체적 기능과 직업적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행복이나 만족 같은 정서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속성을 갖으며(young과 longman, 1983), 최근 연구들은 인간의 행복을 주관적 만족에 사회적 성취도와 승진, 정치적 상황, 종교의 유무, 물가와 실업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복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비과학적이라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 즉 주관적 만족(subjective satisfaction)을 제시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김재호,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치과기공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치과기공사들의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치과기공사 400

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직접배부 및 우편발송을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362매의 설문지 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부실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5매(88.7%)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고민주(2003), 이진희(2008), 정운선(2009)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설문지(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성별, 결혼상태, 월수입 등 8가지 요인을 일반적 특성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만족도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상생활 만족도 설문지의 신뢰도는 0.856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빈도분석)을 산출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생활

만족도와 정서적생활 만족도 및 일상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69.3%로 '여성' 30.7%보다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56.6%로 '기혼' 4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44.5%로 가장 많았고, '30~39세' 40.0%, '40~49세' 13.0%, '50세 이상'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00~299만원'으로 27.6%였으며, '400만원 이상'이 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경력은 '4~10년'이 37.2%로 가장 많고 '1~3년' 35.8%, '1년 미만' 11.8%이었으며, '11~15년'이 5.1%로 가장 적었다. 직무는 '도재'가 40.5%로 가장 많고 '교정'이 3.7%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10~11시간'이 48.2%로 가장 많고 '12시간 이상' 35.5%, '8~9시간' 13.8%, '8시간 미만' 2.5%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 만족에서는 '보통이다' 36.6%, '그저 그렇다' 35.2%, '좋은 편이다' 19.7%, '매우 좋다' 4.8%, '매우 불량하다' 3.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55)

	classification	n	%
sex	male	246	69.3
	female	109	30.7
marriage status	unmarried	201	56.6
	married	154	43.4
age	20~29	158	44.5
	30~39	142	40.0
	40~49	46	13.0
	50 <	9	2.5
monthly income	100~199	195	54.9
	200~299	98	27.6
	300~399	34	9.6
	400 <	28	7.9

	classification	n	%
career	< 1	42	11.8
	1~3	127	35.8
	4~10	132	37.2
	11~15	18	5.1
	< 16	36	10.1
function part	crown	92	25.9
	porcelain	144	40.5
	denture	76	21.4
	orthodontics	13	3.7
	polishing	30	8.5
average working hours	< 8	9	2.5
	8~9	49	13.8
	10~11	171	48.2
	12 <	126	35.5
working environment	very good	17	4.8
	good	70	19.7
	average	130	36.6
	below average	125	35.2
	poor	13	3.7

2. 일상생활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일상생활 만족도 중 사회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71점 이었고 정서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77점으

로 나타나 치과기공사는 사회적 만족이 정서적 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with dental technicians

classification	mean	sd
social satisfaction	3.71	0.58
emotional satisfaction	2.77	0.78
total daily life satisfaction	3.19	0.60

(N=35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생활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사회적 생활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3.75점으로 여성(3.62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3.73점으로 기혼(3.70)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성별과 결혼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20~29세'가 3.7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9세' 3.74점, '50세 이상' 3.71점이었으며, '40~49세'가 3.4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 이 3.80점으로 가장 높고, '300~399만원' 이 3.5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는 '1년 미만' 이 4.03점으로 가장 높고, '1~3년' 3.74점, '16년 이상' 3.71, '11~15년' 3.70점, '4~10년' 3.65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직무에서는 '국부(총)의치' 가 3.8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정' 이 3.85점이었으며, '도재' 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 미만' 이 3.75점으로 가장 높고, '12시간 이상' 이 3.6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직무와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환경 만족에서는 '매우 좋다' 가 4.06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불량하다' 가 3.5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Table 3. Social satisfaction level with

(N=355)

	classification	n	social satisfaction		
			mean	sd	t / F
sex	male	246	3.75	0.60	1.96
	female	109	3.62	0.50	
marriage status	unmarried	201	3.73	0.56	0.44
	married	154	3.70	0.60	
age	20~29	158	3.76	0.55	3.02*
	30~39	142	3.74	0.55	
	40~49	46	3.48	0.72	
	50 <	9	3.71	0.54	
monthly income	100~199	195	3.75	0.54	1.33
	200~299	98	3.66	0.61	
	300~399	34	3.59	0.54	
	400 <	28	3.80	0.73	
career	< 1	42	4.03	0.53	6.40***
	1~3	127	3.74	0.52	
	4~10	132	3.65	0.55	
	11~15	18	3.70	0.88	
	< 16	36	3.71	0.56	
function Part	crown	92	3.70	0.57	2.04
	porcelain	144	3.64	0.56	
	denture	76	3.86	0.54	
	orthodontics	13	3.85	0.75	
	polishing	30	3.68	0.62	
average working hours	< 8	9	3.75	0.38	0.14
	8~9	49	3.74	0.54	
	10~11	171	3.72	0.61	
	12<	126	3.69	0.56	

	classification	n	social satisfaction		
			mean	sd	t / F
working environment	very good	17	4.06	0.73	6.55***
	good	70	3.59	0.64	
	average	130	3.60	0.46	
	below average	125	3.87	0.56	
	poor	13	3.54	0.75	

*p<.05, **p<.01,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생활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정서적 생활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2.77점으로 여성(2.7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2.85점으로 미혼(2.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50세 이상'이 2.91점으로 가장 높고, '40~49세'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과 결혼 상태 및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18점으로 가장 높고, '100~199만원' 2.75점, '200~299만원' 2.74점, '300~399만원'이 2.58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5)가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1년 미만'이 3.01점으로 가장 높고, '11~15년' 2.5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직무에서는 '국부(총)의치'가 2.90점으로 가장 높고, '크라운'이 2.70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 미만'이 3.02점으로 가장 높고, '12시간 이상'이 2.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정서적 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며, 경력과 직무 및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환경 만족에서는 '매우 좋다'가 3.26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불량하다'가 2.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Table 4. Emotional satisfaction level with

(N=355)

	classification	n	emotional satisfaction		
			mean	sd	t / F
sex	male	246	2.77	0.81	0.12
	female	109	2.76	0.68	
marriage status	unmarried	201	2.71	0.74	-1.67
	married	154	2.85	0.82	
age	20~29	158	2.78	0.74	0.82
	30~39	142	2.79	0.76	
	40~49	46	2.61	0.94	
	50 <	9	2.91	0.67	
monthly income	100~199	195	2.75	0.73	3.39*
	200~299	98	2.74	0.80	
	300~399	34	2.58	0.73	
	400 <	28	3.18	0.95	

	classification	n	social satisfaction		
			mean	sd	t / F
career	< 1	42	3.01	0.84	1.66
	1~3	127	2.71	0.71	
	4~10	132	2.76	0.75	
	11~15	18	2.53	0.89	
	< 16	36	2.82	0.92	
function part	crown	92	2.70	0.83	0.83
	porcelain	144	2.73	0.74	
	denture	76	2.90	0.75	
	orthodontics	13	2.80	0.96	
	polishing	30	2.79	0.76	
average working hours	< 8	9	3.02	0.60	2.19
	8~9	49	2.98	0.82	
	10~11	171	2.76	0.73	
	12 <	126	2.68	0.81	
working environment	very good	17	3.26	0.91	8.19***
	good	70	2.56	0.86	
	average	130	2.63	0.65	
	below average	125	3.00	0.75	
	poor	13	2.37	0.67	

*p<.05, **p<.01,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전체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일상생활 전체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3.21점으로 여성(3.1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3.22점으로 미혼(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50세 이상'이 3.27점으로 가장 높고, '40~49세'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과 결혼 상태 및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6점으로 가장 높고, '100~199만원' 3.20점, '200~299만원' 3.15점, '300~399만원'이 3.03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1년 미만'이

3.46점으로 가장 높고, '16년 이상' 3.22점, '1~3년' 3.17점, '4~10년' 3.16점, '11~15년' 2.87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직무에서는 '국부(총)의치'가 3.33점으로 가장 높고, '도재'가 3.1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 미만'이 3.35점으로 가장 높고, '12시간 이상'이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며, 직무 및 평균 근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환경 만족에서는 '매우 좋다'가 3.61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불량하다'가 2.8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Table 5. Total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with

(N=355)

	classification	n	total daily life satisfaction		
			mean	sd	t / F
sex	male	246	3.21	0.64	0.92
	female	109	3.14	0.50	
marriage status	unmarried	201	3.16	0.56	-1.00
	married	154	3.22	0.66	
age	20~29	158	3.22	0.53	1.84
	30~39	142	3.21	0.60	
	40~49	46	3.00	0.80	
	50 <	9	3.27	0.57	
monthly income	100~199	195	3.20	0.54	2.82*
	200~299	98	3.15	0.65	
	300~399	34	3.03	0.59	
	400 <	28	3.46	0.81	
career	< 1	42	3.46	0.59	3.69**
	1~3	127	3.17	0.52	
	4~10	132	3.16	0.59	
	11~15	18	2.87	0.85	
	< 16	36	3.22	0.72	
function part	crown	92	3.15	0.61	1.47
	porcelain	144	3.13	0.59	
	denture	76	3.33	0.57	
	orthodontics	13	3.27	0.81	
	polishing	30	3.18	0.57	
average working hours	< 8	9	3.35	0.44	1.42
	8~9	49	3.32	0.62	
	10~11	171	3.19	0.61	
	12 <	126	3.13	0.60	
working environment	very good	17	3.61	0.69	10.01***
	good	70	3.02	0.69	
	average	130	3.06	0.47	
	below average	125	3.39	0.58	
	poor	13	2.89	0.57	

*p<.05, **p<.01, ***p<.001

IV. 고찰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여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주관적 복리정도를 경험하는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이진희, 2009). 이러한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은 첫째, 자부심, 자아통제, 낙천성, 신명성, 외향성 등의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 둘째, 연령, 성, 결혼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socio-demographic factors), 셋째, 개인소득과 총소득,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요인(economical factors), 넷째, 고용상태와 작업환경, 작업장의 스트레스, 직장동료·친척·친구와의 인간관계, 생활환경과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와 같은 상황요소(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s), 다섯째,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와 같은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이 있다(김재호, 2008).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나타나는 일상생활 만족도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만족은 삶의 긍정적 가치발현 및 행복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신승배, 2009).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9점으로 중간이상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7월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생활 만족도결과(60.6점)와 한국심리학회에서 '2011 한국인의 행복지수'에서 나타난 결과(약 62점) 및 박성희(2005), 이진희(2007), 김성진(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 중에서 사회적 만족도는 평균 3.71점으로 정서적 만족도(평균 2.7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기공사의 경우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20개 대학에 개설된 치기공과에 입학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한 다음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부여되는 전문직이고, 자격 취득 구조가 제한적이므로 학과의 구성원들의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취업 후 임

상에서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임상경험이 축적되어야하고, 거래처 치과병(의)원에 맞춰 다양한 사례의 치료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비숙련자들의 경우 보철물 제작시간의 제약과 재제작 시 심리적 좌절감 및 기술적 부담 등 차등적 대우가 존재하므로 정서적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원인으로 사료되며, 아직까지 치과기공계에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불규칙한 출·퇴근시간과 보철물 제작기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임금체계와 4대 보험 가입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근무환경 측정조사 등의 의무화, 주 5일제 근무 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사회적, 정서적,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현재까지 여성보다는 남성이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서 배출되는 수가 많고 치과기공사의 업무특성상 여성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취업을 하는 분야가 도재파트 중 축성(build-up)업무로 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가영희(2005), 박세훈(2009), 김성진(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강성진(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성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상태의 경우 사회적 만족도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고, 정서적 만족과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이진희(2007), 박세훈(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잡코리아(2011년 7월) 및 한국심리학회의 조사결과에서도 기혼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으로 인한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현경자(2004)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혼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로움과 본인만을 위한 경제적 투자 등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기혼자보다는 높은 반면, 기혼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이 정서적

만족과 일상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의 경우 사회적 만족도에서 '20~29세'가 가장 높고 '40~49세'가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만족과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는 '50세 이상'이 가장 높고, '40~49세'가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만족도의 경우는 강성진(2010)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에 따라 생활 만족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U자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가영희(2005)의 연구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만족과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의 경우 50대에서는 수십 년간의 임상업무에서 쌓인 노하우와 경험으로 인한 경영자들이 대부분으로 직위 상으로 불안감이 적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할 정도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생활 만족도가 높고, 40대의 경우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등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증가하며, 직장에서는 대부분 담당업무에서 책임자적 지위에 있고,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직장에서는 급여지급에 부담이 따르므로 개인적인 독립 경영체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이므로 정서적 생활만족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사회적, 정서적,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모두 가장 높고, 사회적 만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만족과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았다는 가영희(2005), 김성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곽세훈(2009)의 연구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소득 증가는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성진, 2010)는 결과와 함께 세계가치조사에서는 1인당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 물질적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회변화에 따른

주관적 다양성의 확대, 자기표현의 확대, 사회참여 유형의 다양성 등 변화된 욕구층급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고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박희봉 외, 2003). 또한 이진희(2007)의 연구에서 생활체육활동 등의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여가활동이 생활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활동 등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등에 따르는 소모적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경력에서는 사회적, 정서적,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모두 '1년 미만'이 가장 높고, 사회적 만족($p < .001$)과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치과기공업무의 특성상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로 분업화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성별 및 기술수준에 상관없이 각자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고 초임자의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취득 한 다음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어렵지 않게 취업이 가능하고, 처음 취직할 때에도 다양한 치과보철물 제작 분야 중 스스로 선택한 업무에 취업하여 종사하기 때문에 취업 만족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충족감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사회적, 정서적,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 모두에서 '8시간 미만'이 가장 높고, '12시간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영희(2005)의 연구에서 주 5일근무자가 주 6일 근무자 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낮아질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성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자신의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및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기공계 전반에 걸쳐 출,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량에 따라 야간 근무가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작업환경은 사회적, 정서적, 전체 일상

생활 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가 나타났으며, '매우 좋다'가 가장 높고 '매우 불량하다'가 가장 낮았다. 이는 권순석과 백승학(2011), 권은자 외(2010), 이덕수(2010)의 연구결과에서 치과기공소(실)의 작업환경이 나쁠수록 육체적·정신적 자각증상 호소율을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며, 직무 스트레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뿐 만 아니라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치과기공사의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작업환경이 일상생활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과기공사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과제가 치과기공소(실)의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활만족은 개인의 생활전반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고(박성희, 2005), 전 생애를 통해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서 자신이 기대했던 일생과 합일의 정도이므로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적인 문제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생활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조사 당시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만족도가 달리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다양한 치과기공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와 일부 치과기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치과기공사들의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근무 중인 치과기공사 4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재가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5매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중 사회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71점, 정서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77점,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 만족 중 사회적 생활 만족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p < .05$), 경력($p < .001$), 작업환경 만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서적 생활 만족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월수입($p < .05$), 작업환경 만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전체 일상생활 만족도에서는 월수입($p < .05$), 경력($p < .01$), 작업환경 만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치과기공사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치과기공소(실)에서 분진처리를 위한 환기장치 및 소음차단 개선 등 더 좋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다양한 변수를 포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가영희. 성인의 직장-가정갈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강성진.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2010.
- 고민주. 수영운동 참여가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곽세훈.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만족.

-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권순석, 백승학. 치과기공사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자각증상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3(1), 79-92, 2011.
- 권은자, 한민수, 오선미. 치과기공소의 작업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2(3), 127-136, 2010.
- 김성진.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317-334, 2010.
- 김옥태, 한태영.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한 치과기공사의 스트레스 평가.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1(3), 67-85, 2009.
- 김재호. 중고령자의 행복경제학: 이전소득과 자녀의 왕래빈도가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지, 491-505, 2008.
- 민경진, 고영주, 차춘근. 치과기공사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의 연관성.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21(1), 217-242, 2004.
- 박성희.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수철, 전만중, 사공준. 치과기공사의 분진노출 수준 및 개인보호구 착용실태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3(1), 93-102, 2011.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한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54, 2003.
- 신승배.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85-312, 2009.
- 이덕수. 치과기공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종도, 정영해. 대구지역 치기공과 학생의 취업률 향상과 치과기공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1(1), 37-54, 2009.
- 이진희. 생활체육활동 참여태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일 수도권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현욱. 치과기공사의 작업환경과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운선. 김도수련과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효경, 김정숙, 이승희. 치과기공사에 대한 인식도와 이미지 조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2(특별호), 91-102, 2010.
- 현경자. 기혼남여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2004.
- 잡코리아 홈페이지. www.jobkorea.co.kr.
- Frey B, Stutzer alois.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2000.
- Young KJ, Longman AJ.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oma: a pilot study. Cancer Nursing, 6(3), 219-225, 1983.